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세대별 식생활 문화의 특성 : 고려인 2세대와 3세대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 영 선^{1*} · 정 영 숙²

¹대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²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Impact of Generation on the Food Culture of Uzbekistan-Koreans : Comparison between Second and Third Generation

Young-Sun Park^{1*} and Young-Sook Chung²

¹Dept. of Food and Nutrition, Daegu University, 712-714, Korea

²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712-714,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mpact of generation on the traditional food culture of Uzbekistan-Koreans. The generation of Uzbekistan-Koreans was divided into two groups i.e.,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 The second generation suffered from the compulsory emigration during 1930s because of the minority racial breakup policy by the Soviet Russia. The third generation was born after the compulsory emigration and the economic condition was much better for them. In terms of identifying traditional food culture, generation was an important factor because each generation had different social environments and different life styles. Data were collected from 634 Koreans living in Uzbekistan and analyzed by chi-square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impact of generation was an important factor regarding the traditional food culture. Chi-square analysis showed that factors related to making a menu, food priority, and consideration of the person preparing the food were likely to vary depending on the generation. Also, reasons for preferring traditional food and preparing foods for family events as well as national holidays were different between the second and the third generation. The second generation preferred traditional food because of flavor, while the third generation preferred traditional food because of nutrition. For family events and national holidays such as New Year's Day, the second generation was more likely to prepare traditional foods than the third generation. The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reference and intake frequency of traditional foods was positively related, and the degree of correlation was higher for the second than the third generati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generations were discussed, and implications for food and nutrition specialists and food marketers were provided.

Key words : Uzbekistan-Korean, food culture, generation effect.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식생활 문화 특성을 세대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식생활 문화 차원에서 고려인 세대에 대해 논할 때 이들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아온 삶과 역사적 배경을 간과할 수 없다. 구소련에는 냉전 종결 시 40만 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수는 20만 명 정도로 중앙아시아 독립 연합국가들 중 가장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8). 이들은 1930년대에 스탈린의 소수 민족 분산 정책에 따라 극동지역 화물 열차로 연해주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강제 이주 시 가져온 볍씨 등 농작물 씨앗으로 수자원을 이용한 벼농사에 성공하여 중앙아시아에 쌀 등 식용 작물을 보급하고, 콜호즈(집단농장)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1980년부터 민족주의와 이슬람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던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에 구소련이 와해되면서 독립하였다.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들은 이민 1세대부터 4세대에 이르기까지 현지에서 고국 문화와 다소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생활을 영위하며 나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최근 민족 의식을 정립하기 위해 고려인의 문화적 공통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려인의 문화적 동질성을

* Corresponding author : Young-Sun Park, Tel : +82-53-850-6831, Fax : +82-53-850-6839, E-mail : yspark1@daegu.ac.kr

논할 때 중심이 되는 것은 식생활 문화인데, 실제 이들은 한국 전통 식생활 문화에 대해 매우 적극적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고려인의 의식주 생활상에 대한 연구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식생활이라고 밝히고 있다(Lim 2007). 고려인들은 여전히 김치를 먹고 있으며, 이것으로 김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Jeong 2004).

우리는 대대로 내려온 고유 음식을 전통 음식이라 부르고 있으나,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특수 지역에서 다른 민족을 의식하며 그들과의 대비 속에서 생활하므로 획적 개념에서 우리의 전통 음식을 민족음식 또는 고려음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에게 전통 식생활 문화의 가치는 첫째, 민족 보존과 건강 증진을 위한 요소가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오랜 생활 역경을 통하여 수정·보완을 거듭한 것이므로 문화적 근거를 내포하고 있고, 셋째, 각 민족만이 갖는 개성이 있어 문화적 획일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넷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으로 하여금 동질성·소속감·동포애를 갖게 하므로 문화 유산으로 소중할 뿐 아니라 미래의 생활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섯째, 식생활 문화는 변화를 거듭하면서도 전통적 요소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주거공간이나 복식 구조와 달리 민족 정체성과 가장 연관성이 깊다. 실제로 고려인의 의식주 생활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Kang 2001, Jeong 2004, Park & Chung 2008)에 의하면 한국인의 전통적 양식이 가장 잘 보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식생활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고려인들이 러시아 음식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유목민 음식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나 된장, 개장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치를 비롯하여 장류는 고려인과 동일한 문화적 범주로 이해될 정도로 선호하는 전통 음식이며, 이들의 전통적 식생활과 문화적 토양이 타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쳐 김치와 된장은 다민족 음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은 지리적으로 러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으나 생활방식 및 문화유산은 한민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치·사회 및 사상적으로 러시아에 밀착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폐쇄된 사회체제로 인해 한민족 고유의 전통 풍습이나 관습이 외래 문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채로 보존·계승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보존과 계승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직후 태어난 현재의 2세대들이다. 강제 이주 후 고난과 역경을 거듭하며 수자원을 이용한 벼농사를 성공적으로 보급하고 삶의 터전을 어느 정도 잡고 난 다음 태어난 세대가 3세대들이다. 현재 다수의 고려인 2세대는 타슈켄트의 콜호즈에 거주하고 있고, 자녀 세대인 3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을 받고 대부분 도

시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고려인 2세대의 민족 전통에 대한 애착은 고려인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엄청난 삶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전통 문화의 명맥을 이어 왔다. 김치나 국수 등의 고유 음식이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것도 이들 2세대의 전통적 식생활 때문이다.

최근 우즈베크 사회는 과거와 달리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세대 간 차이도 커지고 있다. 세대차란 어느 사회나 있는 현상이지만 문제는 세대 간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생활 문화를 논할 때 세대 차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각 세대의 구성원들은 살아가는 동안 그보다 앞선 세대 또는 뒤이어오는 세대와 다른 생활환경을 경험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구분되는 모습과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그 기대와 차이, 생활양식이 세대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어떤 식생활을 원하고 어떤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대 간 표출된 식생활 양식의 차이는 상황의 변화가 낳은 문화적 형태이고 또 식생활 문화는 역사적·제도적 산물이므로 세대별 식생활 특성과 인식 차이를 파악한다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식생활 문화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로 식생활 예산 계획과 식단 계획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둘째, 평소 즐겨 먹는 간식 종류를 순위별로 알아보고 세대 간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세대별로 시행하는 전통 명절과 명절이나 행사가 있을 때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의 이용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다.

넷째, 세대별로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다.

다섯째, 다수의 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콜호즈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지하는 대표적인 한국 전통 음식의 종류를 알아본다.

여섯째, 세대별로 전통 음식의 선호도와 실질적인 섭취 빈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세대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다.

이러한 연구는 민족의 동질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민족 생활 풍습인 고려인의 전통 식생활 문화의 본질을 세대별로 비교함으로써 민족 공동체 심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마케팅 차원에서 식품산업의 미래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통 요소에 대한 탐색과 유지 발전시키는 방법, 현지 식생활 문화와의 절충에 대한 연구는 우즈

베키스탄 고려인의 식생활 문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한국 전통 음식을 정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자료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700명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2006년 9월 8일에서 11월 29일까지 2개월에 걸쳐 수집하였다.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 현지에서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 설문지는 우즈베키스탄어로 번역한 것이며, 수집 방법은 고려인 주부들이 면접원의 역할을 하였고, 일정 분량의 설문지를 이들 주부들에게 배당시켜 조사 대상자들에게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배부하여 응답하게 한 다음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은 우즈베키스탄의 중심 지역이면서 고려인 거주 비율이 높은 타슈켄트 지역이며, 타슈켄트에서 고려인의 주요 거주지인 콜호즈를 포함하여, 인근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콜호즈를 중심으로 한 고려인 2세대는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었으며,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오늘날의 한국인과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 일부는 구 소련시대의 기본 학제인 10학년을 이수한 사람들이다. 문자 해독력이 없는 2세대 고령층은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또는 면접 방식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총 700부였으나 그 중 응답 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었거나 결측치가 다수 있는 설문지는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분석에 적용된 조사 대상자수는 634명이다.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차원에서 고려인들이 먹는 한국 전통 음식의 종류와 조리법, 재료, 먹는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설문에 응한 634명 중 콜호즈에 거주하는 고려인 2세대 28가정을 방문하여 관찰 및 심층 면접을 하였다.

2. 설문 내용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 방법을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병행 적용하였다. 먼저 설문 조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세대별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양적방법은 χ^2 분석, *t*-test, 상관관계 분석 등을 적용하였다. 세대별 식생활 예산 계획과 식단 계획, 간식의 순위별 종류 비교, 시행하는 전통 명절, 명절이나 행사시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의 이용도,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 차이는 χ^2 분석을 적용하여 세대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세대별로 한

국 전통 음식의 선호도와 실질적으로 섭취하는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대표적인 질적 방법인 관찰과 심층 면접(depth interview)은 우즈베키스탄의 중심 지역이면서 고려인 거주 비율이 높은 타슈켄트의 콜호즈(협동농장) 지역에 거주하는 2세대 여성노인 28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지하는 대표적인 한국 전통 음식의 종류와 조리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들에게 적용한 심층 면접의 주된 내용은 ‘계승되어온 한국 전통 음식의 종류(평양시, 명절 및 행사시)와 조리법’과 ‘지역의 특징적인 한국 전통 음식의 종류와 조리법’ 등이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세대별로 구분하면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주된 변수인 세대분포를 살펴보면 러시아 극동 또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직후 태어나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콜호즈(Kolkhoz)에서 힘들었던 정착 생활을 했던 현재의 노인들인 2세대는 전체의 36.4%인데 비해, 강제이주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나 힘들었던 정착생활 경험 없이 성장하였고 도시에서 교육을 받은 3세대들의 분포는 63.6%로 월등히 더 높았다. 본 연구 표본 분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로 현지에 가 보면 2세대보다 3~4세대가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

Variables	Categories	2nd generation	3rd generation
Gender	Male	106(45.5)	198(49.4)
	Female	127(54.5)	203(50.6)
Education	No school	80(34.5)	11(2.8)
	Elementary school	39(16.6)	10(2.6)
	Junior high school	36(15.6)	95(23.7)
	High school	34(14.6)	84(20.9)
	2 years college	25(10.5)	174(43.3)
	4 years university	19(8.3)	27(6.7)
Family type	Nuclear family	184(79.0)	350(87.4)
	Extended family	49(21.0)	51(12.6)
Hometown	Urban	87(37.2)	230(57.3)
	Near rural	48(20.5)	145(36.0)
	Rural(Kolkhoz)	98(42.3)	26(6.7)
Total N(%)		233(100)	401(100)

고려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려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협동도시인 콜호즈에서 성장한 2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한국적 생활양식 중 특히 식생활 문화를 물려받아 오늘날까지 이것을 전수해 오고 있는 세대이다.

세대별 특성에 따른 성별 분포는 2세대의 경우, 남성의 비율(45.5%)보다 여성의 비율(54.5%)이 9% 더 높았다. 그러나 3세대는 남녀 비율이 유사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교육수준은 2세대보다 3세대가 월등히 높았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2세대는 무학력이 3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졸, 대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2세대 노인들의 중졸 및 고졸 대부분은 구 소련시대의 기본 학제인 10학년을 이수하였다. 3세대는 2년제 대학 졸업자가 43.3%로 가장 많고 중졸과 고졸 비율은 유사한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무학과 초등학교 비율은 3%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 유형에서 두 세대 모두 핵가족 분포가 월등히 더 높았으며, 확대 가족은 2세대(21.0%)의 분포가 3세대(12.6%)의 분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은 2세대의 경우 협동도시인 콜호즈라고 응답한 비율이 42.3%로 가장 많은데 비해 3세대는 도시라고 응답한 비율이 57.3%로 가장 많았다. 콜호즈는 우즈베키스탄의 중심 지역이면서 고려인 거주 비율이 높은 타쉬켄트의 주요 지역이다. 이러한 콜호즈 근교가 고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세대(20.5%)보다 3세대(36.0%)가 더 높았다.

2. 식생활 예산 계획과 식단 계획

세대별 식생활 예산 계획 및 식단 계획을 비교한 결과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식생활 예산 계획과 예산 계획의 실행 여부, 식사 준비 시 고려하는 1요인은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데 비해 식단 계획($p<0.05$), 식단 작성 시 중점을 두는 사항($p<0.05$), 식사 준비 시 고려하는 2요인($p<0.01$), 식사 준비 시 기준을 두는 대상($p<0.01$) 등의 요인들은 모두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식생활 예산 계획과 예산 계획의 실행 여부를 살펴보면 세대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되는 대로 쓴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주식비만 한 달 계획으로 세우고 부식은 적당히 구입한다, 부식비만 한 달 계획을 세운다는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은 반드시 세운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예산 계획의 실행 여부는 계획대로 실행하는 비율보다 그렇지 않은 비율이 월등히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세대별 식단 계획의 경우, 두 세대에 나타난 공통점은 매일 아침 식단을 작성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 비율은 3세대(66.1%)가 2세대(51.2%)보다 월등히 더 높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시

장가기 전에 식단을 정해서 나간다는 것인데, 절대적 비율은 3세대(26.1%)보다 2세대(39.3%)의 비율이 더 높아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주일분 식단을 작성하는 비율은 2세대가, 계절별로 식단을 작성하는 비율은 3세대 약간 더 높았다.

식단 작성 시 중점을 두는 사항 역시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족이 좋아 하는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작성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절대적 비율은 2세대(72.5%)보다 3세대(77.9%)가 더 높았다. 영양이나 경제적인 면에 중점을 두는 응답률은 2세대가 더 높았고, 계절식품 이용에 중점을 두는 응답비율은 3세대가 다소 더 높았다.

식사 준비 시 고려하는 요인을 순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1순위는 세대 간에 차이가 없는데 비해 2순위는 세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의 경우, 세대에 관계없이 가족의 기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영양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2순위의 경우, 2세대는 건강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이 34.1%로 가장 높는데 비해 3세대는 2순위에서도 여전히 영양을 고려한다는 비율이 34.6%로 가장 높아 세대 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요인은 2세대는 식사 준비시간(18.6%)이고, 3세대는 가격(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준비 시 기준을 두는 대상은 두 집단 모두 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상은 2세대는 자신(33.8%)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3세대는 부모(25.6%)와 자신(24.1%)에 대한 비중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준비 시 배우자를 고려한다는 응답률은 두 집단(15.8% vs. 11.7%) 모두 가장 낮았다.

3. 순위별 간식 선호도

평소 좋아 하고 즐겨 먹는 간식 종류를 순위별로 알아본 결과, 1($p<0.05$), 2($p<0.05$), 3순위($p<0.05$) 모두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1순위부터 살펴보면 가장 선호되는 간식 종류는 두 집단 모두 빵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상대적 비율은 2세대가 37.2%이고, 3세대가 43.8%인 것으로 2세대에 비해 3세대가 빵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식은 2세대의 경우 감자(23.2%) 종류이고, 3세대는 과일(19.8%)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튀김류에 대한 선호는 3세대(4.0%)에 비해 2세대(8.7%)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2 순위를 비교해 보면 간식으로 빵을 먹는 비율은 2세대는 한 명도 없었으나, 3세대는 여전히 10.8%가 간식으로 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3세대의 빵에 대한 선호는 3순위에서도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다. 그 외 2

Table 2. Planning food budget and making menu

N(%)

Variables	Categories	2nd generation	3rd generation	χ^2
Planning food budget	Make budget	23(10.0)	31(7.8)	3.29
	Only for staple food costs	72(31.2)	117(29.2)	
	Only for side food costs	32(13.8)	45(11.1)	
	Do not make any budget	105(45.0)	208(51.9)	
Fulfill the plan	Fulfill as planed	18(7.6)	22(5.6)	1.93
	Not fulfill as planed	215(92.4)	379(94.4)	
Making menu	Every morning	119(51.2)	265(66.1)	8.78*
	Every week	19(8.2)	16(4.1)	
	Seasonal base	3(1.3)	15(3.8)	
	Before grocery shop	92(39.3)	105(26.1)	
Considering factors of making menu	Seasonal foods	6(2.6)	21(5.3)	8.90*
	Family taste & preference	169(72.5)	312(77.9)	
	Economic aspect	24(10.3)	23(5.6)	
	Nutrition	34(14.6)	45(11.2)	
Considering factors of preparing food: priority 1	Family taste & preference	122(52.5)	248(62.0)	6.99
	Nutrition	78(33.6)	115(28.7)	
	Price	22(9.5)	24(6.0)	
	Health	9(3.9)	10(2.5)	
	Cooking hours	2(0.8)	4(1.1)	
Considering factors of preparing food: priority 2	Nutrition	54(23.0)	138(34.6)	19.50**
	Price	57(24.3)	69(17.2)	
	Health	79(34.1)	101(25.1)	
	Cooking hours	43(18.6)	93(23.1)	
Considering person in preparing food	Parents	38(16.2)	102(25.6)	13.19**
	Spouse	37(15.8)	47(11.7)	
	Children	79(34.2)	155(38.6)	
	Myself	79(33.8)	97(24.1)	
Total N(%)		100(233)	100(401)	

Note: Each is less than 233, 401 for 2nd and 3rd generation due to missing data.

* $p < 0.05$, ** $p < 0.01$.

순위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을 비교해 보면 2세대는 1순위에서도 비율(23.2%)이 높았던 감자에 대한 선호가 2순위에서는 더욱 높은 비율(32.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자에 대한 선호율은 3세대의 15.8%에 비하면 배나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세대가 떡을 선호하는 비율 역

시 1순위에서는 0.4%에 불과했으나 2순위에서는 25.5%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으로 떡에 대한 선호 비율은 3세대 역시 24.1%로 빵을 선호하는 비율(10.8%)보다 월등히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율에 차이는 있으나 두 세대 모두 간식으로 떡과 감자를 많이 선호한다는 것을 말해

Table 3. Priority of eating snacks

%

Categories	Priority of 2nd generation			Priority of 3rd generation			χ^2
	1st	2nd	3rd	1st	2nd	3rd	
Bread	37.2	0	0	43.8	10.8	10.3	
Fruits	19.4	17.2	-	21.8	14.0	-	
Crackers	0	0	-	0.8	1.3	-	
Milk	5.7	3.9	0.9	6.8	8.8	0.5	
Juice	1.7	1.7	0.4	3.3	3.6	0.3	
Ice cream	1.6	2.1	0.4	1.7	3.3	1.0	21.60*
Fried food	8.7	5.6	11.4	4.0	9.1	1.0	(1st)
Candy	1.3	4.3	1.7	0.2	2.3	2.3	27.80*
Yogurt	0.4	1.3	0	0.3	1.3	0.3	(2nd)
Potato	23.2	32.9	6.0	15.8	16.3	9.4	28.07*
Rice roasted flour	0.4	1.3	0.4	1.5	1.8	0.3	(3rd)
Rice cake	0.4	25.5	16.1	0	24.1	5.1	
Salad	-	4.2	53.3	-	3.3	62.8	
Chocolate	-	-	3.9	-	-	2.2	
Others	-	-	5.2	-	-	4.5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 $p < 0.05$.

준다.

3순위 경우, 2세대는 튀김류에 대한 선호율이 11.4%인데 비해 3세대는 1.0%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떡에 대한 비중은 2세대의 경우 25.5%에서 16.1%로 다소 줄었으나 3세대는 24.1%에서 5.1%로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샐러드를 선호하는 사람은 1순위에서 두 집단 모두 한 명도 없었고, 2 순위에서는 5% 미만이었으나 3순위에서는 2세대(53.3%)와 3세대(62.8%) 모두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식 선호 경향을 종합해 보면 1순위의 경우 고려인 2세대는 주로 빵과 감자를, 그리고 3세대는 빵과 과일류를 간식으로 즐겨 먹고 있다. 2순위의 경우 2세대와 3세대 모두 감자와 떡 종류를 간식으로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호율 자체는 3세대보다 2세대가 월등히 높았다. 3순위의 경우 2세대는 샐러드와 떡을 즐겨 먹으나, 3세대는 샐러드와 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간식 선호경향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명절과 행사 시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의 이용도 한국 전통 음식 및 의례 음식을 배우는데 있어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한국 전통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 명절과 행사시 한국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의 이용도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 전통 음식 및 의례 음식을 배우는데 영향을 준 사람 또는 매체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전통 음식을 좋아 하는 이유($p < 0.05$), 명절과 행사시 한국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의 이용도($p < 0.05$) 등은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전통 음식 및 의례 음식을 배우는데 영향을 준 사람 또는 매체가 세대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이유는 2세대뿐 아니라 3세대 모두 94% 이상이 친정어머니로부터 배웠기 때문이다. 전통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역시 두 세대 모두 95% 이상이 가정교육을 통해 부모로부터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부모 세대의 가정교육으로부터 비롯되며, 이들 부모 세대들이 고려인 사회에서 한국 전통 음식의 명맥을 이어간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 전통 음식을 좋아 하는 이유는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지만 공통점 또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통

Table 4. Traditional food culture tendency in each generation

				N(%)
Variables	Categories	2nd generation	3rd generation	χ^2
Impact on learning traditional food	Husband's grandmother	2(0.9)	5(1.3)	2.79
	Husband's mother	1(0.4)	5(1.3)	
	Wife's mother	220(94.3)	380(94.7)	
	Others(school, book, etc.)	10(4.3)	11(2.8)	
Source of interests for traditional food	Taste & preferences	1(0.4)	3(0.8)	5.91
	Family education	223(95.6)	391(97.4)	
	Book	1(0.4)	0(0.0)	
	Others	8(3.4)	7(1.8)	
Reasons for preferring traditional food	Nutritional factor	25(10.7)	122(30.3)	10.59*
	Flavor	167(71.5)	248(61.9)	
	Used to eat	39(16.9)	25(6.3)	
	Special way of cooking	2(0.9)	6(1.5)	
Preparing food for events	Korean traditional food	75(32.1)	110(27.4)	13.49*
	Foreign food	2(0.8)	8(2.0)	
	Half & half	156(67.1)	283(70.6)	
Preparing food for national holiday	Korean traditional food	100(42.8)	111(27.6)	12.25*
	Foreign food	0(0.0)	2(0.5)	
	Half & half	133(57.2)	288(71.9)	
Total N(%)		233(100)	401(100)	

Note : Each is less than 233, 401 for 2nd and 3rd generation due to missing data.

* $p < 0.05$.

점부터 살펴보면 두 세대 모두 ‘맛이 좋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절대적 비율은 2세대가 71.5%로 3세대의 61.9% 보다 더 높았다. 그 다음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는 2세대의 경우 ‘맛에 익숙해서(16.9%)’ 한국 전통 음식을 좋아 한다고 응답한 반면 3세대는 ‘영양이 좋아서(30.3%)’라고 응답하여 세대 간 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이 한국 전통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 중 맛이 좋아서 선호한다는 응답률이 60~70%를 차지 한다는 점과 3세대의 경우 10명 중 3명은 전통 음식이 영양이 좋아서 선호한다는 응답 분포는 한국 전통 음식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명절과 행사가 있을 때 외래 음식에 비해 한국 전통 음식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를 알아 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을 반반씩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절대적 비율은 2세대보다 3세대가 월등히 높았다. 반면에 한국 전통 음식을 이용하는 비율은 3세대보다 2세대가 더 높았으며, 2세대도 행사(32.1%) 때보다 명절(42.8%)

때 전통 음식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세대는 명절과 행사시에 이용하는 비율에 차이가 없었다. 명절과 행사시 외국 음식만 이용하는 고려인 비율은 2세대 뿐 아니라 3세대도 2%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세대별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

세대별로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2세대가 16.9%로 3세대의 6.5%보다 10% 정도 더 높았다. 그러나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두 세대 모두 비슷하게 5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해 잘 알지는 않지만 보통 정도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세대가 22.2%, 3세대가 31.6%로 3세대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전통 상차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p < 0.01$)

Table 5. Perception of traditional food in each generation

%(N)

Variables	Categories	2nd generation	3rd generation	χ^2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Know well	39(16.9)	26(6.5)	19.58*
	Know	132(56.7)	228(56.9)	
	Mixed	52(22.2)	127(31.6)	
	Do not know	7(3.0)	9(2.3)	
	Do not know at all	3(1.3)	11(2.8)	
Perception of table arrangement of traditional food	Know well	16(6.9)	23(5.8)	35.16**
	Know	119(51.1)	152(37.8)	
	Mixed	83(35.6)	66(16.5)	
	Do not know	12(5.2)	107(26.8)	
	Do not know at all	3(1.3)	53(13.3)	
Comparing Korean traditional food with foreign food	Like very much	79(34.1)	72(17.9)	21.32*
	Like	123(52.6)	109(27.2)	
	Mixed	22(9.5)	125(31.1)	
	Do not like	8(3.4)	52(13.0)	
	Do not like at all	1(0.4)	43(10.8)	
Affecting Korean traditional food on health comparing with foreign food	Much better	80(34.5)	136(33.9)	1.19
	Better	44(19.0)	66(16.5)	
	Mixed	106(45.3)	195(48.6)	
	Worse	2(0.9)	2(0.5)	
	Much worse	1(0.3)	2(0.5)	
Succeed & development of traditional food	Agree	220(94.4)	366(91.3)	3.52
	Mixed	4(1.7)	5(1.2)	
	Disagree	9(3.9)	30(7.5)	
Need to develop traditional food into modernized	Tradition as it is	119(51.1)	140(34.8)	9.94*
	Partial development	107(45.9)	233(58.1)	
	Do not know	7(3.0)	28(7.0)	
Koreans should eat traditional food wherever we live	Strongly agree	188(80.7)	291(72.6)	17.85**
	Agree	34(14.6)	1(0.2)	
	Mixed	0(0.0)	85(21.2)	
	Disagree	1(0.4)	0(0.0)	
	Strongly disagree	10(4.3)	24(6.0)	
Koreans should know how to cook traditional food	Strongly agree	171(73.4)	165(41.3)	8.54*
	Agree	38(16.3)	121(30.1)	
	Mixed	22(9.4)	67(16.6)	
	Disagree	2(0.9)	2(0.5)	
	Strongly disagree	0(0.0)	46(11.5)	
Koreans should use Korean products	Strongly agree	104(44.6)	116(28.9)	18.20**
	Agree	0(0.0)	1(0.3)	
	Mixed	61(26.2)	141(35.2)	
	Disagree	2(0.9)	1(0.2)	
	Strongly disagree	66(28.3)	142(35.4)	
Total N(%)		233(100)	401(100)	

* $p < 0.05$, ** $p < 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세대가 6.9%, 3세대가 5.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세대가 51.1%, 3세대가 37.8%로 집단간 차이가 컸다.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세대 간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이들 3세대가 확대가족 체계 속에서 2세대와 같이 살고 있어 명절이나 제사 때 3세대로부터 배우고 보기 때문이다. ‘잘 모르거나(26.8%)’ ‘전혀 모른다(13.3%)’고 응답한 비율은 3세대가 월등히 높았다.

외래 음식과 비교한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평가는 세대 간 차이가 뚜렷했다. 2세대의 경우, 외래 음식에 비해 한국 전통 음식이 ‘매우 좋다’고 평가한 비율은 34.1%, ‘비교적 좋다’고 평가한 비율은 52.6%로 전체 86.7%가 한국 전통 음식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3세대는 이러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각각 17.9%(매우 좋다)와 27.2%(비교적 좋다)로 전체 45.1%에 불과하였다. 이들 3세대는 부모 세대로부터 듣고 봄으로써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만큼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좋아 하지도 않지만 싫어 하지도 않는다는 응답률이 31.1%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 전통 음식의 본질적 요소와 맛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들 3세대의 취향에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고려인들이 한국 전통 음식을 외래 음식과 비교할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알아 본 결과, 세대간 차이 없이 절반 이상이 외래 음식에 비해 한국 전통 음식이 건강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다수는 외래 음식과 비슷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음식에 비해 한국 전통 음식이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1%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전통 음식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인 세대에 관계없이 90% 이상이 당연히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승 발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한국 전통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에게 한국 전통 음식을 유지 발전시키고 명맥을 이어가는데 어떤 점을 강조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한국 전통 음식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 유지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대 간에 유의한 차이($p < 0.05$)가 있었다. 2세대의 51.1%는 ‘옛날 그대로 전수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3세대는 58.1%가 ‘부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다음 식생활 문화 차원에서 민족공동체적 심성과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인은 어디에 살든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세대는 전체의 95.3%가

‘매우 그렇다(80.7%)’ 또는 ‘그렇다(14.6%)’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3세대는 동 비율이 72.8%(72.6% vs. 0.2%)로 2세대보다 상대적으로는 낮았으나 절대적 비율 자체는 그리 낮지 않았다. ‘한국인이려면 전통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2세대는 89.7%(73.4% vs. 16.3%)가, 3세대는 71.3%(41.3% vs. 30.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거나(16.6%), 한국인이라도 전통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는지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12.0%)고 인식하는 비율도 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무슨 물건이든 국산품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 본 결과, 국산품과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한국인이려면 어디에 살든 한국 전통 음식을 먹어야 한다(2세대 95.3% vs. 3세대 72.8%)거나 전통 음식 조리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2세대 89.7% vs. 3세대 71.3%)는 인식은 상당히 높았으나, 국산품 사용에 대한 인식은 3세대(29.2%) 뿐 아니라 2세대(44.6%)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민족성을 유지하는 민족 집단이 공동체적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일련의 문화적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 중 전통 음식이 동일한 문화적 범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6. 시행하고 있는 세시풍속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이 시행하는 대표적인 세시풍속은 설, 한식, 추석, 삼복 등이며, 이외에 단오, 동지, 입춘 등도 부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6).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설, 추석, 한식을 기념하는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삼복($p < 0.01$), 단오($p < 0.05$), 동지 및 입춘($p < 0.05$) 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첫날을 맞는 설의 경우, 전체 고려인의 90% 이상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들이 고려 음식이라 칭하는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시풍속은 한식으로 87.8%이며, 추석 역시 60% 이상이 전통 명절로 인식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삼복의 경우 2세대는 전체의 47.8%가 개장국과 개고기 무침 등을 해 먹는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3세대는 동 비율이 14.0%에 불과하여 세대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단오와 동지 및 입춘 등을 기념하는 비율도 2세대보다 3세대가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고려사회에서 세시풍속을 기념하는 날은 설, 한식, 추석, 삼복 등이며, 이러한 세시풍속에는 Table 4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2세대 가정은 전체의 42.8%가 그리고 3세대 가정은 전체의 27.6%가 한국 전통 음식을 장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세대(57.2%)도, 3세대(71.9%)도 세시풍속을 기념하는 날에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을 반반씩 이

Table 6. Celebrating Korean national holidays in each generation

National holidays	2nd generation	3rd generation	N(%)
New years day	226(97.0)	391(93.2)	3.71
Hanshik(105th day after the winter solstice)	216(92.5)	325(81.6)	3.85
Ch'usök(Korean Thanksgiving Day)	164(70.4)	269(67.5)	2.32
Sambok(hottest period of summer; three dog days)	111(47.8)	56(14.0)	23.1**
Dano(fifth day of fifth lunar month)	12(5.3)	5(1.2)	13.5*
Dong-gi(coldest winter solstice)	12(5.2)	2(0.6)	14.7*
Ipch'un(first day beginning of spring), Full moon			
Total(N)	233	398	631

* $p < 0.05$, ** $p < 0.01$

용하는 비율이 월등히 더 높았다. 민족 정체성 차원에서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외래 음식만 이용하는 경우는 2세대는 한 가정도 없고 3세대도 0.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7. 콜호즈 지역 2세대가 인지하는 대표적인 한국 전통 음식

문화적 동질성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은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중심 지역이면서 고려인 거주 비율이 높은 타슈켄트 그리고 타슈켄트에서도 고려인의 주요 거주지인 콜호즈 2세대인 28명의 노인들을 중심으로 각 가정에서 평상시, 명절 및 행사 시 계승되어온 한국 전통 음식의 종류에 대해 면접하였다. 이들 2세대 면접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18명,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 10명을 중심으로 하였다. 2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유는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 고려인들은 도시로 이주하고 노인 세대만 남아 있는 콜호즈에 한국인의 식생활 문화적 요소가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어 고려인들의 실생활을 알아보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면접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고려인 2세대가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인식하고 평상시 또는 명절과 행사시에 장만한 음식들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쌀로 만든 음식으로는 밥, 떡(증편, 찰떡), 김밥, 떡국, 유과 등이며, 주식으로 국수를 자주 만들어 먹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통 발효 식품으로는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을 한국 전통 식품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종류로는 고려인들이 시락장물이라 부르는 시락국과 개장국인데, 시락국은 돼지고기를 삶아 육수를 낸 물에 된장을 풀고 말린 배추와 무 잎을 넣어 끓인 것이다. 시락국은 고려인들이 밥과 함께 먹는 식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장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국이다. 개장국과 개고기 무침도 대표적인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고기류로는 개고기, 돼지고

기, 불고기(쇠고기) 등을 언급하였는데, 돌잔치, 결혼, 회갑, 제사 등과 같은 한국 전통 의례상에 돼지고기와 닭고기 삶은 것을 올리면서도 면접 시에는 한국 전통 음식으로 개고기, 돼지고기는 언급하였으나, 28명의 노인 세대 중 닭고기를 언급한 노인은 없었다. 식사 후 즐겨 마시는 녹차도 안국전통 식품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류별 음식

쌀로 만든 음식 및 주식: 밥, 떡(증편, 찰떡), 국수, 김밥, 떡국, 유과
 발효식품 :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국 종류 : 시락국, 개장국, 미역국
 고기류 : 개고기 무침, 삼겹살, 불고기
 차종류 : 녹차

이번에는 이들 고려인 2세대가 인식한 전통 음식의 종류별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면접 시 각각의 음식들을 얼마나 자주 언급하였는지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8명의 2세대 노인들 중 10회 이상 언급한 음식은 떡과 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떡 종류는 주로 찰떡과 증편으로 중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에 비해 그리 다양하지 않았다. 김치도 즐겨 먹는 전통 음식이라고 하였는데, 이들 고려인이 말하는 김치의 대표적인 것은 배추김치, 양배추김치, 당근김치, 오이김치 등이다. 이러한 김치는 중앙아시아란 문화적 토양 위에서 나름의 변화를 거치면서 전통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떡과 김치 다음으로 자주 언급된 음식은 밥, 국수, 시락국, 개고기 무침 및 개장국 등이다. 2세대가 있는 가정은 상에 밥과 더불어 반드시 차려지는 것이 시락국이며, 여름철에는 개장국도 매우 선호되는 음식이다. 3회 이상 언급된 음식 중 된장은 고추장과 더불어 찜장을 만들어 채소와 먹기도 하지만 주로 시락국에 넣어 먹기 때문에 된장을 별도로 언급하지

Table 7. Recalled and perceived Korean traditional foods : Interview with 2nd generations living in Kolkhoz area

Interviewed persons	Recalled and perceived traditional foods
1	Danjang, soy sauce
2	Dog meat
3	Danjang, soy sauce, Gochujang
4	Noodles, dog meat
5	Noodles, glutinous rice cake
6	Noodles, rice cake
7	Noodles, fried rice with honey
8	Kimchi, Danjang soup with dried cabbage
9	Kimchi, noodles
10	Kimchi, rice cake
11	Kimchi, rice cake, seaweed soup
12	Tofu, soy sauce
13	Rice cake, green tea
14	Rice cake, dog meat, seaweed soup
15	Rice cake, Kimchi
16	Glutinous rice cake, steamed-rice cake
17	Noodles, Kimchi, glutinous rice cake, steamed-rice cake
18	Glutinous rice cake, steamed-rice cake, fried rice with honey
19	Dog meat, seaweed soup, rice cake
20	Boiled rice, rice rolled in dried seaweed, Kimchi, rice-cake soup
21	Boiled rice, Danjang soup with dried cabbage, three-ply pork
22	Boiled rice, Kimchi, Danjang soup with dried cabbage
23	Boiled rice, Kimchi, Pulgogi, Danjang soup with dried cabbage
24	Boiled rice, Danjang soup with dried cabbage, glutinous rice cake
25	Glutinous rice cake, green tea
26	Noodles, glutinous rice cake, fried rice with honey
27	Kimchi, glutinous rice cake
28	Glutinous rice cake, tofu

않고 시락국과 더불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면접 시 언급된 음식의 회수

10회 이상 : 떡, 김치

4~5회 : 밥, 국수, 시락국, 개고기 무침 및 개장국

3회 : 간장, 된장, 미역국, 유과

2회 : 두부, 녹차

1회 : 고추장, 김밥, 떡국, 삼겹살, 불고기

이러한 면접 조사를 통해 고려인과 떡, 김치, 시락국, 개장국 등은 거의 동일한 문화적 범주로 이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전통 음식에 대해 2세대들을 중심으로 면접하였지만 앞의 분석 결과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3세대들도 부모 세대와 같이 전통 음식이 갖는 장점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민족음식으로 인지하고 있다.

8. 전통 음식의 선호도와 섭취 빈도 간의 평균차이

이번에는 세대별로 한국 전통 음식의 선호도와 섭취 빈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한 결과가 Table 8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전통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높는데 비해 실질적인 섭취 빈도는 음식에 따라 두 집단 모두 다소 낮은 분포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3세대가 2세대보다 전통 음식에 대한 선호도와 섭취 빈도 간에 차이가 있는 음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세대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먼저 2세대의 경우 선호도와 섭취 빈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음식은 밥, 국수, 김치, 된장과 고추장, 시락국, 녹차 등이다. 선호도에 비해 섭취 빈도가 낮은 음식은 염장 생선, 떡, 유과, 개고기 등이며 이들 음식들 중 선호도와 섭취 빈도 간에 1.5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음식은 떡과 유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3세대의 경우에는 밥, 국수, 녹차를 제외한 모든 음식에서 선호도는 높으나 섭취 빈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음식 중 시락국, 떡, 유과, 개고기 등은 선호도와 섭취 빈도 간에 1.5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염장 생선은 2.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현지 면접과정에서 파악된 사안은 선호도와 섭취 빈도 간에 차이가 큰 음식들 중 떡과 유과는 2세대와 3세대 모두 선호하는 음식이지만 선호하는 만큼 섭취 빈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떡이나 유과가 일상 음식이 아니라 세시 음식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유과를 고려과 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2세뿐 아니라 3세대도 매우 선호하는 전통 음식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개고기도 고려인들이 선호하며 즐겨 먹는 음식 중의 하나이며, 특히 삼복 등과 같이 여름철에 보양식으로 먹는 경향이 있어 사계절 먹을 수 있는 밥이

Table 8. Mean differences between preferences and intake frequencies of generation

Food items (Preference vs. intake frequency)	2nd generation		3rd generation	
	Mean difference	<i>t</i>	Mean difference	<i>t</i>
Boiled rice	0.57	0.94	0.94	3.26*
Noodles	0.81	1.76	0.89	6.11**
Kimchi	0.53	7.24**	1.21	3.15*
Danjang and soy sauce	0.58	1.27	1.38	6.01**
Gochujang	0.48	1.03	1.47	4.10**
Danjang soup w. cabbage	0.51	1.61	1.57	6.65**
Salted fish	1.13	3.15*	2.13	5.86**
Rice cake	1.51	3.61*	1.53	5.01**
Fried rice with honey	1.64	3.17*	1.59	5.09**
Dog meat	1.01	4.47*	1.87	8.48**
Green tea	0.71	2.50*	0.63	0.98

* $p < 0.05$, ** $p < 0.01$.

나 국수만큼 선호도에 비해 섭취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이다.

9. 전통 음식의 선호도와 섭취 빈도 간의 상관관계

세대별로 한국 전통 음식의 선호도와 섭취 빈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Table 9에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세대와 음식에 따라 선호도와 섭취 빈도 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세대의 경우 모든 음식들이 선호도와 섭취 빈도 간에 유의한 관계($p < 0.01$)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섭취 빈도 역시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관계의 정도를 반영하는 상관관계수 값이 0.8 이상으로 특히 높은 음식은 밥과 시락국이며, 0.7 이상의 관계를 가진 음식은 국수, 김치, 된장, 개고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떡은 선호하는 만큼 섭취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호도와 섭취 빈도 간의 평균차이를 설명할 때 언급한 바와 같이 떡은 일상음식이기 보다 명절이나 행사시 만들어 먹기 때문이다.

3세대의 경우, 개고기를 제외한 모든 음식의 선호도와 섭취 빈도가 유의한 정적 관계($p < 0.05$ 또는 $p < 0.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계의 정도는 다수의 음식이 2세대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려인 2세대에 비해 3세대가 모든 음식에서 선호하는 만큼 섭취 빈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녹차 및 홍차 등의 차 종류에 대한 선호도와 섭취 빈도는 2세대에 비해 3세대가 더 높았

Table 9. Correlation between preferences and intake frequencies of Korean traditional food

Food items (Preference vs. intake frequency)	Generation	
	2nd	3rd
Boiled rice	0.87**	0.41*
Noodles	0.76**	0.51*
Kimchi	0.74**	0.31*
Danjang and soy sauce	0.71**	0.27**
Gochujang	0.67**	0.43*
Danjang soup w. cabbage	0.81**	0.38**
Salted fish	0.64**	0.32*
Rice cake	0.59**	0.46*
Fried rice with honey	0.62**	0.45**
Dog meat	0.73**	0.26
Green tea	0.64**	0.71*

* $p < 0.05$, ** $p < 0.01$.

다. 3세대 중 상관관계수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음식은 차, 국수, 떡, 유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식생활 문화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민족공동체 정서를 이해하고 고려인의 전통 식생활 문화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전통 음식 문화가 현지 문화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왔는지, 앞으로 한국 전통 음식이 어떻게 계승 발전되어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 결과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생활 및 예산 계획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쓰는 비율이 높았다. 세대별 공통점은 매일 아침 식단을 작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인데, 절대적 비율은 3세대가 더 높았다. 그러나 시장가기 전에 식단을 정한다는 비율은 2세대가 더 높았다. 식단 작성 시 중점을 두는 사항은 두 세대 모두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중심으로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영양 및 경제면에 중점을 둔다는 응답은 2세대가, 계절식품 이용에 중점을 둔다는 응답은 3세대가 더 높았다. 식사 준비 시 고려하는 요인은 2세대는 건강을, 3세대는 영양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준비 시 기준을 두는 대상은 두 세대 모두 자녀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가장 낮았다.

둘째, 순위별 간식 선호도는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순위에서 가장 선호하는 간식은 빵이며, 선호 비율은 3세대가 더 높았다. 그 다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식은 2세대는 감자, 3세대는 과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도 3세대는 여전히 빵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2순위에서 세대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2세대는 감자와 떡을 대한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떡에 대한 선호율은 3세대도 매우 높았다. 3순위의 경우 2세대는 샐러드와 떡을, 3세대는 샐러드와 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 전통 음식은 두 세대 모두 절대다수가 친정어머니로부터, 가정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부모세대인 고려인 2세대의 가정교육으로부터 비롯되며, 이들 부모 세대들이 한국 전통 음식의 명맥을 이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 음식을 좋아 하는 이유는 두 세대 모두 다수가 '맛이 좋아서' 라고 응답하였으나 절대적 비율은 2세대가 더 높았다. 그 외 2세대는 '맛에 익숙해서', 3세대는 '영양이 좋아서' 전통 음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전통 음식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맛과 영양이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명절과 행사시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을 반반씩 이용하는 비율은 3세대가, 전통 음식만 이용하는 비율은 2세대가 더 높았다.

넷째, 세대별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해보면 전통 음식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비율은 2세대가 더 높았다. 전통 상차림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비율은 세대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2세대가 더 높았다. 외래 음식과 비교한 전통 음식에 대해 2세대는 전체의 86.7%가 전통 음식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3세대는 긍정적 평가 비율이 전체의 45.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좋아 하지도 싫어 하지도 않는다는 응답률은 3세대가 더 높았는데 이는 전통 음식의 본질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들 3세대의 취향에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세대 모두 절반 이상이 외래 음식에 비해 전통 음식이 건강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 전통 음식의 계승, 발전에 대해 두 세대 모두 90% 이상이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 음식의 계승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세대 간에 차이가 있다. 2세대는 옛날 그대로 전수해야 한다고 인식하는데 비해 3세대는 부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은 어디에 살든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하고, 전통 음식의 조리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세대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민족성과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 일련의 문화적 요소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 중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이 동일한 문화적 범주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섯째, 2세대 비율이 높은 콜호즈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통 음식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심층 면접을 한 결과 쌀로 만든 음식으로는 밥, 떡(중편, 찰떡), 김밥, 떡국, 유과 등과 국수가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전통 발효식품으로는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이, 그리고 국 종류는 시락국과 개장국이 전통 음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고기류로는 개고기, 불고기, 삼겹살이, 차 종류는 녹차와 홍차가 전통 음식 또는 음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통 음식의 종류별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심층 면접에 임한 28명의 노인 중 10회 이상 언급한 음식은 떡과 김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주 언급한 음식은 밥, 국수, 시락국, 개고기 무침 및 개장국 등이다. 2세대 면접을 통해 고려인과 떡, 김치, 시락국, 개장국 등은 동일한 문화적 범주로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세대별 전통 음식의 선호도와 섭취 빈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2세대는 모든 음식의 선호도와 섭취 빈도 간에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가 높은 음식은 밥과 시락국을 비롯하여 국수, 김치, 된장, 개고기 등이다. 3세대는 개고기를 제외한 모든 음식의 선호도와 섭취 빈도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계 정도는 2세대보다 낮았다. 그러나 녹차 등의 차 종류에 대한 선호도와 섭취 빈도는 2세대에 비해 3세대가 더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전통 음식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인 세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려인의 식생활 문화는 고려인 2세대와 3세대로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전통 음식의 맥을 이어가는 중심에 고려인 2세대가 있다. 이들 2세대는 지금도 한 끼 이상은 밥, 시락국, 김치 등의 전통 음식을 먹고 있다.

확대가족 내에서 2세대와 3세대가, 더 나아가 고려인 공동체가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음식공동체가 형성되고 이것이 기반이 되어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고려인 2세대를 중심으로 한 전통 식생활은 자녀세대인 3, 4세대를 비롯하여 고려인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들어 빵을 주식으로 하던 3세대도 전통 음식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빵보다 밥을 선호하고 있어 부모세대인 2세대가 그래왔던 것처럼 밥 문화 중심의 식생활로 복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과의 교류를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 사회가 개방되면서 문화적 접촉 차원에서 고려음식과 한국 음식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음식에 대한 역사와 정보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즈베

키스탄에는 고려인 3세대가 절대다수라는 점과 이들 고려인의 학력이 높고, 전통 음식을 선호한다는 점 그리고 부분적으로 전통 음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기호나 취향에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8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문 헌

- Jeong JY (2004) Food culture and identity of the Koreans in Uzbekistan. *Master's thesi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Kang JS (2001) National identity of Koreans and living culture in central Asia.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8: 105-131.
- Lim, Y (2007) Uzbekistan's ethnic policy and identity of Korean Diaspora.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8) Koreans Overseas. <http://www.mofat.go.kr>.
- Park YS, Chung YS (2008)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and cultural background of Uzbekistan-Korean.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18: 884-895. (2009년 5월 21일 접수, 2009년 7월 3일 채택)